



# 금융기관 대형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

이해랑 연구원

- IMF는 금융기관 대형화와 경제성장 및 금융 안정성이 지니는 관계를 살펴보고, 향후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신흥국의 금융기관 발전 및 규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.<sup>1)</sup>
- IMF는 보고서에서 각 나라의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를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‘금융발전지수’를 개발함.
  - 기존에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의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들은 대부분 특정 금융시장에 집중되어 있거나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을 분리하여 측정하는 지표들로 국가 전체의 금융발전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없는 한계를 지님.
  - 이에 IMF는 기존 지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각 나라의 금융발전 정도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‘금융발전지수’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1980년대부터 2013년까지 128개국 자료를 분석함.
    - 금융발전지수는 금융기관 및 시장의 규모(depth), 접근성(access), 효율성(efficiency)을 세부 기준으로 하고 있음.
    - 규모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크기와 유동성을 의미하며, 접근성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접근 능력, 효율성은 안정된 수익 기반에서 낮은 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능력과 자본 시장의 활동 수준을 의미함.
  - 금융발전지수는 0~1까지 수치로 측정되며,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금융발전수준이 높음을 의미함.
- 금융발전지수를 토대로 금융발전 수준과 국가 경제성장 및 금융 안정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금융기관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커지면, 오히려 국가 경제 및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.
  - 금융발전지수에 따르면 금융개발지수가 0.4~0.7일 때 국가 경제성장 및 금융 안정성이 최고조에

1) IMF(2015. 5), "Rethinking Financial Deepening: Stability and Growth in Emerging Markets".

이르나, 그 수치를 넘어서면서부터 금융발전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.

- IMF에 따르면 아일랜드, 미국, 일본의 금융기관은 발전이 과도한 수준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함.

- 금융발전지수 중에서도 효율성과 접근성보다는 금융기관 및 시장의 규모가 국가 경제성장 및 금융 안정성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.

■ IMF는 금융발전 속도 역시 각 국가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이야기함.

- 금융발전지수 중에서도 금융기관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감당해야 할 레버리지와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금융 불안정성이 더 커짐을 지적하며, 금융기관 성장 속도와 금융 불안정성 간 정(+)의 관계가 성립함을 밝힘.

■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IMF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금융발전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함.

- IMF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경제 건전화에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함.
- 금융 안정성을 위한 규제들이 금융기관 및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며, 재무건전성과 같은 규제들은 금융 안정성과 금융발전을 촉진시키는 규제임.

■ 보고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흥국 금융발전과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.

- 신흥국경제는 현재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형화가 당분간은 국가 경제 발전 및 금융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
- 다만, 그 발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금융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또한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형화는 국가 경제 및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형화에 대한 규제도 미리 마련해두어야 한다고 제안함.

■ 우리나라 금융 감독 당국은 향후 금융관련 규제 수립 시 국가의 경제 발전 및 금융발전 수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임.

(IMF, Financial Times 등)